

이성 간 인상 형성에서 일어나는 단편 판단 (Thin-slice Judgement)의 성차*

강평원 설선헤†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사람들은 짧은 시간동안 주어지는 제한적 단서만으로도 낯선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단편적 단서를 이용하여 잠재적 교류 대상의 속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을 단편 판단(thin-slicing)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짝짓기 전략(mating-strategy)의 성차에 관한 진화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이성 간 교류에서 남성과 여성이 중요시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성 간에 일어나는 단편 판단 과정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남녀 대학생들에게 이성의 사진 또는 목소리를 짧은 시간 제시한 뒤 상대방의 성격과 신체치수를 예측하도록 하고 교제상대로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의 신체치수(체질량 지수)를, 여성은 남성의 성격 중 정서적 안정과 성실성을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며, 이들 정보가 이성에 대한 호감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여성의 다산성을, 여성은 남성의 자원제공능력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한다는 진화심리학의 발견들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진화적 관점에서 이성에 대한 단편판단을 조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어: 인상형성, 단편 판단, 진화심리학, 짝짓기 전략, 성차

사람들은 짧은 시간 주어지는 제한적 정보를 바탕으로 잠재적 대인 교류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Ambady, 2010; Carney, Colvin, & Hall, 2007; Weisbuch & Ambady, 2010). 인상 형성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직관적 판단 과정을 단편 판단이라고 부르며, 생존과 번식, 집단생활과 같이 진화적으로 중요한 문제들과 직결되는 속성의 판단과 특히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mbady, Bernieri, & Richeson, 2000; Ambady & Rosenthal,

1992).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상대방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짝짓기 전략에 관한 기존 진화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Buss, 1994, 2004; Ryan, 1997; Trivers, 1972), 이성에 대한 인상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편 판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배우자 선택에서 남성과 여성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속성들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예측된 속성이 이성에 대한 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재원의 연구재단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2010-0029271) 및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지원이 있었음을 밝힌다.

† 교신저자: 설선헤,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Zurich, Bluemlisalpstrasse 10, 8006, Zurich, Switzerland, E-mail: sunhae.sul@gmail.com

인상 형성과 단편 판단

직관적 처리 체계는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직면해온 주요 문제들과 관련된 정보를 정교하고 의식적인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지각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적응을 돕는다. 대인 교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직관적 정보처리는 첫인상 형성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수초에서 수분 간 주어지는 매우 제한적인 단서만을 이용하여 잠재적인 교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이렇게 형성된 첫인상을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이 때 사람들은 판단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의 “단편(thin-slice)”을 근거로 일반화된 특성을 추론해야 하므로, 이러한 정보처리 과정을 “단편 판단(thin-slicing)”이라고 한다. 인상 형성과 단편 판단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수 초 내지 수 십 초 간 제시되는 평범한 행동의 단편이나 얼굴 사진, 목소리, 기숙사 방이나 사무실 책상의 모습과 같이 매우 단편적인 단서만 주어지더라도 상대방의 특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bady, 2010; Ambady & Rosenthal, 1992).

한편, 단편 판단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되는 정보들은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적응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이다(Ambady & Rosenthal, 1992; Ambady, *et al.*, 2000). 예를 들어, 대인 교류에서 사람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상대방이 좋은 협력자인가, 즉, 호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상대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다(사기꾼 탐지와 호혜적 이타주의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논의는 다음을 참고: Brown & Moore, 2000; Tooby & Cosmides, 2005; Trivers, 1971). 실제로 사람들은 성격(Berry, 1991; Gosling, Ko, Mannarelli, & Morris, 2002; LePine & Dyne, 2001; Vazire & Gosling, 2004)이나 신뢰성(van't Wout & Sanfey, 2008; Engell, Haxby, & Todorov, 2007), 이타심(Fetchenhauer, Groothuis, & Pradel, 2010)과 같은 좋은 협력자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Fetchenhauer 등(Fetchenhauer *et al.*, 2010)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는 장면을 음

성이 삭제된 상태로 20초 간 보여준 뒤, 그 사람이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돈을 분배할 것인지를 예측하도록 하였는데, 참가자들은 평정 대상자들의 독재자 게임에서의 실제 행동을 우연 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선거에서의 당선 가능성(Todorov, Mandisodza, Goren, & Hall, 2005)이나 사회경제적 지위(Kraus & Keltner, 2009)와 같은 사회적 위계와 관련된 정보, 성적 취향(Freeman, Johnson, Ambady, & Rule, 2010; Rule, Ambady, Hallett, 2009)과 성범죄자의 폭력성 여부(Stillman, Maner, & Baumeister, 2010)를 단편 정보만으로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 간 교류에서의 주요 문제: 짝짓기 전략

대인 교류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협력자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성 간 교류에서 사람들이 직면해온 중요한 진화적 문제는 상대방이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특성에는 성차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상대방의 신체적 매력을 더 중요시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방의 성격과 능력(또는 자원)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Buss, 1994; 2004).

진화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성차를 자녀 양육에 투자하는 자원, 즉 재생산 비용(reproduction cost)의 성차 때문이라는 부모투자이론(parental investment theory, Trivers, 1972)으로 설명한다. 남성의 경우 가임 연령에 제한이 거의 없으며 임신과 출산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재생산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산성(fertility)의 지표가 되는 연령과 건강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가임 연령과 생리적 주기, 임신 기간 등으로 인하여 재생산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재생산 기회를 늘리는 것보다는 적은 수의 자손이라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선호하며,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결과, 배우자 선택 시 남성은 여성의 다산성을 보여 주는 신체적 특징을, 여성은 남성의 장기적 헌신과 자원 제공 의사 및 능력을 보여주는 성격 특징과 경제적 능력을 다른 요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러한 가설은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 예를 들어, Buss와 동료 연구자들(Buss, Shackelford, Kirkpatrick, & Larsen, 2001)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57년에 걸친 배우자 선호 양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고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 및 이와 관련 있는 성격(아망이나 근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는 시간에 걸친 변화가 없었으며, 이러한 성차가 범문화적, 범세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힌 Buss(1989)의 이전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남성이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적 특징에는 다양한 건강 지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칭성과 평균얼굴(Cunningham, Roberts, Barbee, Druen & Wu, 1995; Larglois & Roggman, 1990; Shackelford & Larsen, 1997), 다산성과 관련이 있는 허리와 엉덩이 비율(Waist-Hip-Ratio, Singh, 1993)과 체질량 지수로 측정되는 체내 지방의 분포 등이 있다(Tovée, Reinhardt, Emery, & Cornelissen, 1998).

건강 상태나 가입 여부는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에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여성이 배우자 선택에서 직면하는 더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이 얼마나 충실하게 양육 과정에 협조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Buss 등(Buss, 1989; Buss et al., 2001)은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자원획득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격특성들도 중요시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성격 5요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성격 차원을 살펴본 연구(Buss et al., 1990)에 따르면, 특히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이 여성의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37개의 문화권 중 23개의 문화권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정서적 안정성이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으나, 모든 문화권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여성에게서 더 강했다. Buss와 Shackelford(1997)는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남성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빈도가 전체 남성의 평균보다 높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들이 불안정한 자원 제공으로 여성에게 정서적인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성이 여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는 성격 차원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성실성은 남성의 경제적 능력과 직결되는 요인인 직업적 성취 및 지위 획득 가능성과 관련 있다. Betzig(1989)도 여성이 이성을 선택할 때 근면성과 성실성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성격특성이 장기적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그 밖에,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이성을 차례로 만난 뒤 짝을 결정하는 스피드 데이팅에 관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상대방의 신체적 매력도인 반면에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관찰 가능한 짝짓기 상황에서도 부모 투자이론이 예측하는 성차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Kurzban & Weeden, 2005; Todd, Penke, Fasolo, & Lenton, 2007).

정리하면, 남성과 여성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신의 재생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서로 다른 성 선택 전략을 사용하며, 이는 실제로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부터 여러 문화에 걸쳐 조사된 일반적인 배우자 선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 간 교류에서 일어나는 단편 판단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단편 판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진화적으로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으며, 배우자 선택 전략에서 남성과 여성이 중요시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성에 대한 단편 판단에서도 배우자 선호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관찰될까?

이성 간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정서와 성격 특질, 지능에 관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반면(Ambady, Hallahan, & Rosenthal, 1995; Carney et al, 2007; Hall, 1984; McClure, 2000; Vogt & Colvin, 2003), 남성은 여성의 외모에 더 주목하는 것처럼 보인다

(Becker et al, 2005; Maner et al., 2003).

Carney 등(Carney et al, 2007)은 단편 판단을 이용한 이성 간 첫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정서 상태(부적 정서와 정적 정서), 성격 5요인과 지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모든 영역에 걸쳐 더 정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여성들은 상대의 정서 상태(Hall, 1984; McClure, 2000)나 성격 특질과 지능(Ambady, Hallahan, & Rosenthal, 1995; Vogt & Colvin, 2003)을 남성에 비하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일반적인 인상 형성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성 간 인상 형성에서 일어나는 단편 판단의 성차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밖에 인상 형성 연구와는 다른 맥락에서 남성과 여성이 이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할 때 서로 다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어, Becker 등(Becker, Kenrick, Guerin, & Maner, 2005)은 남성과 여성 피험자들에게 이성의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이 나타난 위치를 기억하도록 하는 공간 기억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매력적인 여성의 얼굴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타났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er 등은 이러한 결과를 매력적인 여성의 외모는 남성에게 진화적으로 높은 정보를 가지므로 다른 정보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Maner 등(Maner et al., 2003)도 여러 이성의 얼굴을 짧은 시간에 동시에 제시한 뒤 실험 참가자들의 안구운동을 측정하여, 남성들이 매력적인 여성의 얼굴을 선택적으로 우선 처리함을 밝혔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성 간 인상 형성에서 나타나는 단편 판단의 성차를 성격과 외모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에도 일반적인 인상 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제시

되는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 단편 판단 과정을 통해 진화적으로 적합한 배우자의 속성과 직결되는 정보(성격과 신체특성)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정보가 이성에 대한 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 제시되는 이성의 사진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은 뒤 성격과 신체치수를 예측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이성교제의 상대로서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도 평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격의 5요인과 신체치수 중에서 어떤 특성들을 특히 잘 파악하는지 알아보고,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특성들이 기존 진화심리학 문헌에서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속성들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예측의 정확성이 높은 속성들이 이성에 대한 호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 진화심리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남성은 여성의 신체특징을, 여성은 남성의 성격특징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속성들이 호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자극 제작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자원을 학생들로부터 사진과 목소리 정보를 제공받았다. 자원자들은 약 15분 간 사진 촬영과 목소리 녹음 및 질문지 작성에 참가하였고 5000원의 참가비를 받았다. 이들은 사전에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가 익명을 전제로 별도의 실험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사진 촬영과 목소리 녹음, 질문지 작성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실험 절차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보제공에 동의한 총 40명(남녀 각 20명)의 사진과 목소리, 질문지 응답 내용이 본 실험에 사용되었다.

사진

자원자들의 사진은 흰색 벽을 바탕으로 가슴 높이

이상의 상반신이 촬영되었다. 자원자들은 입을 다문 채로 살짝 미소 짓는 정도의 표정을 지시 받았다. 촬영된 사진은 흑백으로 변환되어 12cm × 16cm의 크기로 일정하게 편집되었다. 인상 형성 과제의 참가자들에게 사진의 매력도를 평정하도록 한 결과, 여성 사진은 7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33(범위 2.21-5.18), 남성 사진은 평균 3.30(범위 1.86-4.88)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남성과 여성 자극에서 차이가 없었다.

목소리

목소리는 음성 녹음 소프트웨어인 Praat(<http://www.praat.org>)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자원자들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표준어 억양과 발음으로 읽도록 지시 받았다. 녹음 시 말을 더듬거나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원자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 분 가량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며, 녹음 도중 실수가 있을 시에는 재녹음을 하였다. 문장의 길이와 녹음의 질, 참가자 간의 억양 및 발음, 말하는 속도의 균질성을 고려하여 5초 길이의 동일한 문장을 골라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인상 형성 과제의 참가자들에게 목소리 매력도를 평정하도록 한 결과, 여성의 목소리는 평균 3.68(범위 2.38-4.59), 남성의 목소리는 평균 3.61(범위 2.35-4.68)로 목소리 자극 역시 매력 수준이 다양하고, 남녀 자극 간 차이가 없었다.

자기보고 질문지

성격 5요인

평정 대상이 되는 자원자들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하여 TIPI(Ten-Item Personality Inventory, Gosling, Rentfrow & Swann, 2003)를 사용하였다. TIPI는 기존의 성격 5요인 질문지의 축약형으로 성실성, 개방성, 우호성, 외향성,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며, 각 요인 별로 2문항 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경우 문항 수가 적기 때문에 신뢰도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나 기존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성이 높고 시험-재시험 타당도가 안정적이며 본 연구와 같은 단편 판단 연구에 흔히 사용된다(Gosling *et al.*, 2003).

신체치수

성격 질문지를 완성한 자원자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장(cm)과 체중(kg)을 제공하였다. 다시 한 번 익명이 보장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이 연구의 정밀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 제시되었으며 정확한 신체치수를 모르는 경우 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신장과 체중 정보는 이후 분석에서 체질량지수(BMI: Body-Mass Index)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자기보고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실측값과의 오차가 크지 않고 남녀 모두에서 신장을 더 크게 보고하고 체중을 더 작게 보고하는 일관된 경향성이 있으나, 여기에는 성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Lim, Seubsman, & Sleigh, 2009)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상 형성 과제

인상 형성 실험 참가자들은 평정 대상(이성)의 사진만 제시되는 조건(이하, 사진조건), 목소리만 제시되는 조건(이하, 목소리조건), 또는 사진과 목소리가 동시에 제시되는 조건(이하, 동시조건)의 세 조건 중 하나에 무선 할당 되었다.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제작한 사진과 목소리 자극이 참가자들에게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단편적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성격과 신체치수를 예측하고 이성으로 호감이 가는 정도를 평정하였다.

참가자

심리학 관련 교양 수업을 듣는 서울대학교 학생 125명(남 67, 여 58, 평균 연령 20.7세)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참가하였다. 사진조건에는 43명(남 22명, 여 21명), 목소리조건에는 42명(남 23명, 여 19명), 동시조건에는 40명(남 22명, 여 18명)이 할당되었다. 실험이 끝난 후 사후 질문지에서 평정 대상자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응답한 7명의 참가자들의 경우 해당 평정 대상자에 대한 반응을 추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절차

세션 당 최대 5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파티션으로 구분된 책상에서 인상 형성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의 과제는 컴퓨터를 통해 제시되는 20명의 인물에 대해 이성교제 대상으로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평정하고 성격과 신체치수를 예측하는 것이었다. 이 때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 참가자는 여성을, 여성 참가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 화면 상에 과제 수행 방법에 대한 안내가 제시된 후 인물 1부터 인물 20까지의 정보가 차례로 제시되었다. 이때 사진조건에서는 컴퓨터 화면 상에 인물의 번호와 사진이 제시되었으며 목소리조건에서는 컴퓨터 화면 상에는 인물의 번호만 제시되고 이어폰을 통하여 목소리가 제시되었다. 동시조건에서는 컴퓨터 화면 상에 인물의 번호와 사진이 제시되었고 이어폰을 통하여 목소리가 제시되었다. 각 인물 당 자극 제시 시간은 5초였다. 참가자들은 한 번에 한 인물씩 차례로 호감의 정도, 성격과 신체치수를 예측하였다.

참가자들이 예측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호감

인상 형성 대상에 대한 호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대에게 이성친구로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호감이 가는 정도를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는 방식은 기존의 단편판단 연구에서도 흔히 이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대인교류의 목적(이성교제)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성친구로서의 호감으로 질문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성격 5요인

인상 형성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성격을 예측하도록 하기 위해 TIPI의 10문항 중에서 성격 5요인 별 한 문항씩 총 5문항을 선택하여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지시문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사용하였다: “다음의 내용이 이 사람을 얼마나 잘 기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7점 척도에 따라서 응답해주세요.”

신체치수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신장과 체중을 예

측하였다. 참가자들이 예측한 신장과 체중은 이후 분석에서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는 데 이용되었다. 체질량지수는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기존 연구에서 여성의 매력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Tovee *et al.*, 1999).

연구 결과

단편 판단의 정확성

사람들이 단편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상대방의 성격 및 신체 특징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인물에 대한 복수 평정자들의 예측 점수를 평균한 뒤, 20명의 인물 각각에 대해 얻어진 이 평균 예측 점수와 자기보고값 간의 상관을 구했다. 이는 ‘합의 방식(consensual method)’이라 불리는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형태의 사회 지각(social perception) 연구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Berry, 1990, 1991; Cunningham, 1986; Langlois *et al.*, 1987; Montepare & Zebrowitz- McArthur, 1987; Gosling *et al.*, 2002).¹⁾ 참고로, 각 속성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도는 평균 .72로 높았다(남성 평정자: 개방성 .80, 성실성 .60, 우호성 .76, 외향성 .79, 정서적 안정성 .60; 여성 평정자: 개방성 .80, 성실성 .78, 우호성 .53, 외향성 .83, 정서적 안정성 .72). 성별 및 조건 당 표집수가 20명에 불과하였으므로 비모수 통계치인 Spearma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나 Pearson 상관계수에서도 전반적 경향성은 동일했다. 상관 분석의 결과는

1) 합의 방식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어떤 특성을 여러 사람이 판단하도록 한 뒤, 평정 값의 평균을 구하여 그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평정자들이 평정대상의 특성을 예측하도록 하는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이 평정자들 간의 평정값의 신뢰도가 높을 경우, 평정자 간의 평정의 편차가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방식에 의해 도출된 평균 평정치가 종속변수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Berry(1991)는 목소리 정보와 얼굴 정보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수의 피험자로부터 동일인물의 다양한 성격 특성에 대하여 예측하도록 한 뒤, 예측값의 평균과 평정대상자의 자기보고값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 자극 제공자의 자기보고 점수와 인상형성과제에서의 예측 점수 간 Spearman 상관계수

구 분	여성이 남성 평정			남성이 여성 평정		
	사진	목소리	동시	사진	목소리	동시
성격 5요인	개방성	.15	.12	-.04	-.06	.18
	성실성	.35	.25	.47*	-.27	.11
	우호성	-.12	-.22	-.21	.02	-.38
	외향성	-.08	-.35	-.23	-.35	-.02
	정서적 안정성	.47*	.33	-.12	-.07	.20
신체치수	신장	-.31	.31	.30	.19	.30
	체중	-.20	.24	-.10	.27	.27
	체질량지수	.29	-.18	.09	.47*	.13

* $p < .05$, † $p < .10$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인상형성

먼저 여성 참가자가 남성 평정 대상의 성격을 예측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의 경우 사진, 목소리, 동시조건에서 일관되게 정적 상관관이 관찰되었으나, 동시조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 = .47, p < .05$). 정서적 안정성의 경우 사진과 목소리 조건에서 일관되게 정적 상관관이 관찰되었으나, 사진조건에만 상관관계수가 유의하였다($r = .47, p < .05$).

신체치수의 경우, 여성 참가자들은 사진, 목소리, 동시조건에서 모두 남성 평정 대상의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일관된 경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인상형성

여성 참가자들과는 반대로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평정 대상의 성격을 거의 예측하지 못했다. 성격 5요인 중에서 일관된 경향성이 관찰되는 요인은 없었으며, 동시조건에서만 성실성을 한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r = .39, p < .10$), 사진조건에서는 상관이 부적으로 나타나는 등 일관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사진, 목소리, 동시조건에서

모두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의 자기보고값과 예측값 사이에 일관된 정적 상관관이 관찰되었으며, 신장의 경우 동시조건에서($r = .55, p < .05$), 체질량지수의 경우 사진조건과($r = .47, p < .05$) 동시조건에서($r = .55, p < .05$)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었다.

요약하면, 단편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인상 형성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격, 그 중에서도 특히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잘 예측하고, 신체치수는 잘 예측하지 못한 반면, 남성은 여성의 성격보다는 신체치수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선택 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성격 특질을 중시하는 반면 남성은 다산성과 건강의 지표인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중시한다는 진화심리학의 가설과 일치한다. 위의 결과는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인상 형성에서도 일반적 인상 형성과 마찬가지로 관계 맺음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짧은 시간 제시되는 단편적 정보 만으로도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측된 특성이 호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인상 형성에서 진화적으로 중요한 정보(남성의 경우 여성의 신체치수, 여성의 경우 남성의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를 짧은 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악된 정보가 잠재

적 교류를 가정한 호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시 말해, 단편 판단을 통해 알아낸 성격과 신체 정보가 상대를 이성교제 상대로 고려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를 신체 특성으로, 성격 5요인 중 남성과 여성에서 최소 한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예측되었던 성실성과 여성 참가자들이 비교적 잘 예측하였던 정서적 안정성을 성격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이 두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Betzig, 1989; Buss & Shackelford, 1997; Buss *et al.*, 1990). 또한, 성격과 신체 요인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격 요인에서도 체질량지수와 같은 종합 점수(성격점수)를 구했다. 성격점수는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의 점수를 합하여 구했다. 이론적으로 성격의 5요인은 서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된 성격측정치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격을 예측하도록 한 측정치였으므로 요인 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7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으므로 호감도를 설명하는 성격 요인 지표로 두 요인의 합계 점수를 사용하였다.

상관 분석

평정자가 예측한 성격특성과 신체특성이 호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예측된 정보와 호

감 간의 Spearman 상관계수를 구했다(표 2).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인상형성

여성 참가자들에게 남성 평정 대상에 대한 호감의 정도를 물어본 경우, 사진조건(성실성: $r = .42, p < .05$; 정서적 안정성: $r = .42, p < .10$; 성격점수: $r = .47, p < .05$), 목소리조건(성실성: $r = .61, p < .05$; 정서적 안정성: $r = .40, p < .10$; 성격점수: $r = .61, p < .05$), 동시조건(성실성: $r = .59, p < .05$; 정서적 안정성: $r = .42, p < .10$; 성격점수: $r = .56, p < .05$)에서 모두 성격특성이 호감과 유의미하거나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높다고 예측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호감의 정도가 증가했다. 성격특성과는 달리 신체특성은 여성 참가자들의 남성에 대한 호감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인상형성

여성 참가자들과는 달리 남성 참가자들이 여성을 평정하는 경우에는 신체특성이 호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사진조건(체중: $r = -.54, p < .10$; 체질량지수: $r = -.43, p < .10$)과 목소리조건(체중: $r = -.57, p < .05$; 체질량지수: $r = -.67, p < .05$), 동시조건(체중: $r = -.40, p < .10$; 체질량지수: $r = -.44, p < .10$)에서 모두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호감과 유의미하거나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 날씬한 체형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여성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전반적으로 호감과 정적 상관을 보여 남성 참가자

표 2. 예측된 성격 및 신체 특성과 호감의 상관

구 분	여성이 남성 평정			남성이 여성 평정			
	사진	목소리	동시	사진	목소리	동시	
성격 특성	성실성	.42*	.61*	.59*	.33	.50*	.35
	정서적 안정성	.42*	.40*	.42*	.20	.64*	.29
	성격 점수	.47*	.61*	.56*	.30	.58*	.35
신체 특성	신장	-.31	.31	.30	-.10	.34	.13
	체중	-.20	.24	-.10	-.54*	-.57*	-.40*
	체질량지수	.29	-.18	.09	-.43*	-.67*	-.44*

* $p < .05$, † $p < .10$

역시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에 호감을 가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상관계수는 목소리조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성실성: $r = .50, p < .05$; 정서적 안정성: $r = .64, p < .05$; 성격점수: $r = .58, p < .05$) 여성이 남성을 평정하는 경우에 비해 성격과 호감의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여성의 이성에 대한 호감도는 성격특성과 관련이 높은 반면에 남성의 이성에 대한 호감도는 신체특성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중회귀분석: 성격특성과 신체특성이 호감에 미치는 영향

호감 판단에서 이용되는 정보 중에서 성격특성과 신체특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성격특성을 지수화한 성격점수와 신체특성을 지수화한 체질량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호감도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을 수립한 뒤 성격점수와 체질량지수가 호감을 예측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표 3).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인상형성

여성 참가자들이 남성 평정 대상자에 대한 호감을 판단하는 경우 성격특성이 신체특성보다 더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사진조건, 목소리조건, 동시조건에서 모두 성격이 호감을 유의하게 예측한 반면, 체질량지수는 호감을

예측하지 못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는 성격특성이 신체특성에 비하여 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인상형성

반면, 남성 참가자들의 여성 평정 대상에 대한 호감 형성에는 신체특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조건에서 예측된 신체특성이 호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사진조건과 동시조건에서는 신체특성만이 호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목소리조건은 경우 신체특성과 성격특성이 모두 호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그러나 목소리 조건에서도 신체특성의 회귀계수가 성격특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여전히 신체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는 이성에 대한 호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성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성의 남성에 대한 호감에는 성격특성이 신체특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호감에는 신체특성이 성격특성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흥미롭게도, 앞에서 관찰된 단편 판단 결과와 종합해볼 때, 남성과 여성이 각각 이성에 대한 호감을 형성할 때 중요하게 작용한 정보들이 단편 판단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정보들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남성에 대한 호감 형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성격특성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호감 형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신체특성은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 예측된 성격 점수와 체질량 지수가 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조 건	R ²	Standardized beta		F	P	
		성격	체질량지수			
여성이 남성 평정	사진	.12	.44+	.05	2.33	.13
	목소리	.26	.58*	-.15	4.29	.03
	동시	.23	.57*	-.10	3.87	.04
남성이 여성 평정	사진	.16	.18	-.49*	2.86	.09
	목소리	.60	.36*	-.55**	15.37	.00
	동시	.20	.23	-.43+	3.33	.06

** $p < .01$, * $p < .05$, † $p < .10$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이성 간 인상형성에서 일어나는 단편판단을 진화적 관점에서 조명한 최초의 연구로, 짧은 시간 동안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배우자 선호의 성차에 관한 진화심리학 연구에 근거하여 성격특성과 신체특성을 예측하고 호감을 형성하는 과정에 성차가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에게 이성 교제를 가정하고 이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도록 하였을 때 단편 판단으로 예측할 수 있는 속성에 성차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의 성격 중에서도 특히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잘 예측하는 반면 신체치수는 예측하지 못했고, 남성의 경우 여성의 신체치수를 잘 예측하는 반면 성격은 잘 예측하지 못했다. 예측된 성격 및 신체특성이 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측의 정확성과 일치하는 성차가 관찰되었다. 흥미롭게도, 여성의 경우 남성의 성격이 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의 신체특성이 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 간 교류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격 정보를, 남성은 여성의 신체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 한다는 진화심리학의 발견들과 일치한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짝짓기 전략에서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는 남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남성의 자원 제공 능력은 남성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자원의 양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직업과 같은 정보를 통해서도 추론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능력보다는 성격을 남성의 자원 제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의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남성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자원의 양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잠재력과 그 자원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은 성격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험 참가자들은 20대 대학생으로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을 획득하기 이전이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는 성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 5 요인 중에서도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호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은 이 두 속성을 단편 판단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특히 자원 제공 가능성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근면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향이 있으며 (Willerman, 1979), 높은 교육 수준을 성취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Kyl-Heku & Buss, 1996). 즉, 성실성은 남성이 앞으로 가지게 될 잠재적 자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정서적 안정성은 성실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자원 획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나, 남성이 확보한 자원을 여성에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특성으로 여성의 배우자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남성의 경우에는 자원 제공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뿐 아니라 여성의 자원도 소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Buss, 1996).

한편,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는 다산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다산성에는 나이(여성의 가임 기간이 제한적이므로)와 건강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외모와 체형을 통하여 드러난다. 특히 허리-엉덩이 비율과 체질량지수는 기존 문헌에서 다산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선호에 중요한 요인이다(Singh, 1993; Tovée, Reinhardt, Emery, & Cornelissen, 1998). 본 연구에서는 허리-엉덩이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고 (Tovée *et al.*, 2002), 자기보고 방식으로 비교적 정확하고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Lim, Seubsman, & Sleight, 2009)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를 신체 정보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여성의 다산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특성인 신체치수가 호감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단

편 판단을 통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²⁾

인상형성과 단편판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사람들이 호혜적 협력과 관련된 정보를 단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현상이 이성 간 교류에서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에서도 나타남을 보였다. 또한 기존 진화심리학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바 있는 짝짓기 전략의 성차가 단편 판단에서도 나타남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먼저, 인상 형성의 맥락이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성 간 교류에서 장기적 관계를 목표로 하는지 단기적 관계를 목표로 하는지 상대방을 선택하는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짝짓기 전략에 관한 진화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남녀 모두 상황에 따라 단기적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장기적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 단기적 전략에서 상대방의 건강과 신체적 매력, 접근 가능성이 중요시 되고 장기적 전략에서 상대방의 성격과 자원이 중요시된다는 점에서는 성차가 없다. 다만,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과 같은 재생산(reproduction) 과정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의식적인 수준에서 결혼과 같은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와 단기적 교류를 위한 짝을 찾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략에 큰 차이가 없다(Buss & Schmitt, 1993). 반면, 남성은 관계가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따라 취하는 전략이 달라지는데, 단기적 관계에서는 건강과 신체적 매력을 중시하는 단기적 전략

을 취하지만, 장기적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적 충실성이나 좋은 양육자로서의 능력과 같은 성격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다(Buss & Schmitt, 1993; Schmitt, Couden, & Barker, 2001).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상대방이 이성친구로서 얼마나 호감이 가는지를 물어보았으므로 장기적 관계보다는 단기적 관계의 상대로서 평정 대상자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부각시켰을 수 있다. 장기적 관계를 가정하는 경우에는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관찰될 가능성도 있다. 이성 간 인상 형성의 상황을 단기적 관계를 가정한 경우와 장기적 관계를 가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성격과 신체특성이 호감에 미치는 영향과 단편 판단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대학생들의 이성교제라는 제한적 맥락에서 해석하더라도 이성 간 인상형성에서 남성과 여성이 중요시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고 진화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발견에는 변함이 없다.

둘째, 제시되는 단서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속성에 대한 단편 판단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에 성차가 있을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목소리와 사진으로부터 잘 추측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 또는 여성이 특별히 사진이나 목소리에 더 민감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³⁾ 단서의 종류와 제시 시간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가며 단편 판단의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예측된 속성과 호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2)를 보면, 여성이 남성을 평가하는 경우

2) 체질량 지수의 경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즉 극단의 경우에는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표본을 고려할 경우 매력도와 선형 관계보다는 역 V자형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Tovée *et al.*, 1998). 그러나 극단치가 없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매력도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Tovée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체질량지수가 19-26의 범위 내에 있어 심각한 저체중(17.9 이하)인 평정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호감과 체질량 지수의 관계가 선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사진과 목소리 중 어느 정보가 제시되었을 때 상대방의 특성에 대한 예측이 더욱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과 목소리, 동시조건인 성격 5요인과 신체치수에 대해서 예측한 상관계수를 사진과 목소리, 목소리와 동시, 사진과 동시조건으로 짝을 지어 Fisher z-test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관계수의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어느 특정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 상대방의 특성을 예측하는 것에 더 많이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

남성이 여성을 평가하는 경우든 사진조건에서 보다는 목소리조건에서의 성격 평정치나 신체 평정치가 호감과 더 강한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진 정보보다 목소리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특성이 호감 형성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진 정보와 목소리 정보가 호감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성에 대한 인상 형성 과제만을 포함했기 때문에 남성이 외모 정보, 여성이 성격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성에 대한 인상형성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일반적인 대상(동성과 이성 모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차가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여성이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성격과 지능을 잘 예측을 잘한다는 결과가 있으나 (Ambady et al., 1995; Carney et al., 2007; Lippa & Dietz, 2000; Murphy et al., 2003; Vogt & Colvin, 2003) 남성이 이성과 동성 모두에 대해 신체특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편 판단의 성차가 이성간 교류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이르다.⁴⁾ 이성 간 인상 형성과 동성 간 인상형성에서 일어나는 단편 판단을 비교해보고 진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본 연구에서 발견한 성격과 신체치수에 대한 단편 판단의 성차가 경제력, 사회적 지위, 건강 등 사람들이 배우자 선택에서 중요시 하는 다른

4) 그러나 동성 간 인상형성 조건이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진화심리학의 배우자 선택 가설은 단편 판단의 성차가 반드시 이성 간에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aner 등(Maner et al., 2003)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매력적인 남성보다는 매력적인 여성의 외모를 선택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결과를 여성의 외모는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동성의 경쟁자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짝짓기 경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는 동성 간 인상 형성에서 이성 간 인상 형성과 동일한 성차(즉, 여성은 전반적으로 남성의 성격을, 남성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성을 중요시하는 결과)가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 간 인상형성에서 동일한 성차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성 간 교류에서 일어나는 단편판단”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발견은 여전히 지지된다.

속성들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mbady, N. (2010). The perils of pondering: Intuition and thin slice judgments. *Psychological Inquiry*, 21, 271.
- Ambady, N., Bernieri, F., & Richeson, J. (2000). Towards a Histology of Social Behavior: Judgmental Accuracy from Thin Slices of Behavior.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pp.201-272.)
- Ambady, N., Hallahan, M., & Rosenthal, R. (1995). On judging and being judged accurately in zero acquaintance sit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518-529.
- Ambady, N., Rosenthal, R. (1992). Thin slices of expressive behavior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consequence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1, 256-274.
- Becker, D.V., Kenrick, D.T., Guerin, S. & Maner, J.K. (2005). Concentrating on Beauty: Sexual Selection and Sociospatial Mem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643-1652.
- Berry, D. S. (1990). The perceiver as naive scientist or the scientist as naive perceiver? A n ecological view of social knowledge acquisition. *Contemporary Social Psychology*, 14, 145-153.
- Berry, D.S. (1991). Accuracy in social perception: contributions of facial and voc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98-307.
- Betzig, L. (1989). Causes of conjugal dissolution: A cross-cultural study. *Current Anthropology*, 30, 654-676.
- Brown, W. M., & Moore, C. (2000). Is prospective altruist-detection an evolved solution to the adaptive problem of subtle cheating in

- cooperative ventures? Supportive evidence using the Wason selection task.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1, 25-37.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es tested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1-49.
- Buss, D. M. (1994). The strategies of human mating. *American Scientist*, 82, 238-249.
- Buss, D.M. (2004). *Evolutionary psychology*. In R. Gregory (Ed.), *Oxford Companion to the Mind*. London.
- Buss, D. M., Abbott, M., Angleitner, A., Biaggio, A., Blanco-Villasenor, A., Bruchon-Schweitzer, M *et al.* (1990). International preferences in selecting mates: A study of 37 societies.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21, 5-47.
- Buss, D. M., & Schmitt, D. P. (1993). Sexual Strategies Theor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uman mating. *Psychological Review*, 100, 204-232.
- Buss, D.M., & Shackelford, T.K. (1997). From vigilance to violence: Mate retention tactics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46-361.
- Buss, D. M., Shackelford, T. K., Kirkpatrick, L. A., & Larsen, R. J. (2001). A half century of American mate preferences: The cultural evolution of val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 491-503.
- Carney, D.R., Colvin, C.R. & Hall, J.A. 2007. A thin slice perspective on the accuracy of first impress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 1054-1072.
- Cosmides, L, & Tooby, J. (1992). Cognitive adaptations for social exchange. In J. H. Barkow, L. Cosmides, & J. Tooby (Eds.), *The Adapted Mind* (pp.163-22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unningham, M. R. (1986). Measuring the physical in physical attractiveness: Quasi-experiments on the sociobiology of female facial beau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25-935.
- Cunningham, M.R. Roberts, A.R. Barbee, A.P. Druen, P.B. & Wu, C.H.(1995). "Their ideas of beauty are, on the whole, the same as ours": Consistency and variability in the cross-cultural perception of female physical attract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61-279.
- Engell, A.D., Haxby, J.V., & Todorov, A. (2007). Implicit trustworthiness decisions: Automatic coding of face properties in the human amygdala.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 1508-1519.
- Fetchenhauer, D., Groothuisc, T. & Pradel, J. (2010). Not only states but traits—Humans can identify permanent altruistic dispositions in 20 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1, 80-86.
- Freeman, J. B., Johnson, K., Ambady, N. & Rule, N. O. (2010). Sexual orientation perception involves gendered facial c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1318-1331.
- Gosling, S.D., Ko, S.J., Mannarelli, T., & Morris, E.M. (2002). A room with a cue: personality judgments based on offices and bedro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79-398.
- Gosling, S.D., Rentfrow, P.J. & Swann, W.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528.
- Hall, J. A. (1984). *Nonverbal sex differences: Communication accuracy and expressive styl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raus, M.W., & Keltner, D. (2009).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 Psychological Science*, 20, 99-106.
- Kurzban, R., & Leary, M. R. (2005). Hurry Date: Mate preferences in actio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6, 227-244.
- Langlois, J. H. (1986). From the eye of the beholder to behavioral reality: Development of social behaviors and social relations as a func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G. P. Herman, M. P. Zanna, & E. T. Higgins (Eds.), *Physical appearance, Stigma, and Social Behavior* (pp.23-52). Hillsdale, NJ: Erlbaum.
- LePine, J. A., & Van Dyne, & Linn, V.D. (2001). Voice and cooperative behavior as contrasting forms of contextual performance: Evidence of differential relationships with Big F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gnitive abil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326-336.
- Liddell, B.J., Brown, K.J., Kemp, A.H., Barton, M.J., Das, P., Peduto, A., Gordon, E. & Williams, L.M. (2005). A direct brainstem - amygdala - cortical 'alarm' system for subliminal signals of fear. *Neuroimage*, 24, 235-243.
- Lippa, R., & Dietz, J. K. (2000). The relation of gender,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to judges' accuracy in judging strangers' personality from brief video segment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4, 25-43.
- Maner, J.K., Kenrick, D.T., Becker, V., Delton, A.W., Hofer, B., Wilbur, C.J. et al. (2003). Sexually selective cognition: Beauty captures the mind of the behold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107-1120.
- McClure, E. B. (2000). A meta-analytic review of sex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 processing and their development in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Bulletin*, 126, 424-453.
- Montepare, J. M. & Zebrowitz-McArthur, L. (1987). Perceptions of adults with childlike voices in two cult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3, 331-349.
- Murphy, N. A., Hall, J. A., & Colvin, R. C. (2003). Accurate intelligence assessments in social interactions: mediators and gender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71, 465-493.
- Rule, N. O., Ambady, N., & Hallett, K. C. (2009). Female sexual orientation is perceived accurately, rapidly, and automatically from the face and its feat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1245-1251.
- Ryan, M. (1997). Sexual selection and mate choice. In J. R. Krebs & N. B. Davies (Eds.), *Behavioural Ecology: An Evolutionary Approach*, (pp.179-202). Oxford: Blackwell Science.
- Schmitt, D. P., Couden, A., & Baker, M. (2001). The effects of sex and temporal context on feelings of romantic desire: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sexual strategies The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833-847.
- Shackelford, T. K. & Larsen, R. J. (1997). Facial asymmetry as an indicator of psychological, emotional, and physi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56-466.
- Stillman, T.F., Maner, J.K., & Baumeister, R.F. (2010). A thin slice of violence: distinguishing violent from nonviolent sex offenders at a glanc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1, 298-303.
- Todorov, A., Mandisodza, A.N., & Goren, A. (2005). Inferences of competence from faces predict election outcomes. *Science*, 308, 1623-1626.
- Todd, P. M., Penke, L., Fasolo, B., & Lenton, A. P. (2007). Different cognitive processes underlie human mate choices and mate preferenc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 15011-15016.
- Tooby, J. & Cosmides, L. (2005). Evolutionary psychology: Conceptual foundations. In David Buss (Ed.), *Handbook of Evolutionary Psychology*.

- NJ: John Wiley and Sons.
- Tovée, M.J. Maisey, D.S. Emery, J.L. & Cornelissen, P.L. (1999). Visual cues to female physical attractivenes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266*, 211-218.
- Trivers, R. L.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Quarterly Review of Biology*, *46*, 35-57.
- Trivers R. L. (1972). Parental investment and sexual selection. In Campbell B (ed) *Sexual selection and the descent of man* (pp.1871-1971) Aldine, Chicago.
- Van't Wout, M., & Sanfey, A. G. (2008). Friend or foe: The effect of implicit trustworthiness judgments in social decision-making. *Cognition*, *108*, 796-803.
- Vogt, D. S., & Colvin, C. R. (2003).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the accuracy of personality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71*, 267-295.
- Weisbuch, M., & Ambady, N. (2009). Unspoken cultural influence: Exposure to and influence of nonverbal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1104-1119.

Gender Differences in Thin-Slice Judgement during the Opposite-Sex Impression Formation

Pyungwon Kang Sunhae Sul Incheol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People can infer information about others from a brief observation, namely by the thin-slice judgmen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gender difference of thin-slice judgment during the impression formation of the opposite sex.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infer personality traits and body sizes of a target person and evaluate her/his likableness as a potential girl/boyfriend based on a brief exposure to face, voice, or both.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evolutionary psychology on mating strategy, we predicted and confirmed that male participants inferred body sizes (Body Mass Index: BMI) of a female target more precisely than personality traits whereas female participants inferred personality traits (emotional stability and conscientiousness) of a male target more accurately than BMI. In addition, the likableness judgment of each target was largely affected by the features that each gender could infer with higher precis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Keywords: impression formation, thin slice, evolutionary psychology, mating strategy, sex difference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7월 09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8월 23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8월 24일